

# 이낙연·주승용, 전남도지사 후보 행보 본격화

## 이, 시·군 현안사업 국비확보 예산간담회 주, 단체·기관방문 주민 숙원사업 챙기기 '안 신당' 후보 낼 수도... 박지원은 "생각 없다"

민주당 이낙연(4선)·주승용(3선)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전남도지사 후보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3선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내년에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무주 공산'이 될 차기 도지사 자리를 놓고 두 의원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두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활동 폭을 넓히며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영광 출신으로 영광·함평·장성·담양이 지역구인 이낙연 의원은 28일부터 29일까지 전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22개 시·군 예산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호남지역 유일한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이 의원은 예산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각 시·군의 2014년 국비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시기와 체계적인 활동이 중요한 만큼 각 시·군의 현안사업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는 것이다.

최근 행복마을, 친환경농업단지,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잇따라 방문한 이 의원은 "조치를 꾸리기보다는 현상의 실이 있는 이야기를 취재하듯이 들어보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전남 일선 시·군 예산 담당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이낙연 의원      주승용 의원

열기도 했다.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의원은 문화예술·농업·노인분야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관련 단체와 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3월 전남 22개 시·군의 절반이 넘는 13개 군을 직접 찾아 주민 숙원 사업인 사회간접자본(SOC) 현황을 챙겼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는 주민 숙원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두 사람 외에 유력한 도지사 후보가 없지만 '안철수 신당' 후보 등장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전남(안철수 신당 후보 지지 29.4%, 민주당 후보 지지 42.7%)이 광주(안철수 신당 후보 지지 37.5%, 민주당 후보 지지 35.8%)보다는 안철수 신당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정서가 크게 반영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28일 모 언론사에서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내년 6월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박 전 원내대표는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의 위기, 호남의 위기 국면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내가 지금 전남도지사를 욕심낼 시기도 아니고 생각도 없다"며 "오늘 오후 나간 기사는 완전 오보다"라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승원 칼럼

바야흐로 '빨리빨리'의 시대에 나는 지금 '짜목짜목'과 '간담간담'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전라도 사투리에 '짜목짜목'과 '간담간담'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사 전에도 올라 있다. 짜목짜목은 어떤 일을 천천히 밀고 나가는 것을 뜻한 말이 고, 간담간담은 전체가 좁은 진폭으로 가볍게 움직여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수업에 볼 끄듯이 일하는 사람에게 '짜목짜목해라' 하고 말하고, 등에 짐을 진 채 가파른 재를 오를 때 간담간담 올라가자고 말한다. '고나오 해에, 사람이 살면 몇백 년이나 사느냐'하고 육자배기 한 자리를 부르고 올라가면 아주 좋다.

나는 올해로 칠십 오세 인데, 급년에 시집(사랑하는 나그네 당신)을 펴냈고, 장편소설 <겨울잠, 봄 꿈>을 펴냈다. 늘 그막에 들면서부터 소설을 '짜목짜목' 즐기며 쓰고 '간담간담' 여유롭게 수정

나 엘리전자 사람들이 매로 때려라 할지 모르지만, 스마트폰이 젊은이들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시대가 찾아왔다. 트위터를 하고, 카카오톡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고, 검색을 한다.

공짜인 그것을 즐기라고 책을 보지 않는다. 여행을 하면서도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도봉산, 수락산, 그 산 너머로 떠오르는 해, 지는 노을을 감상할 줄 모른다. 젊은이들 모두가 사색할 줄 모르는 스마트폰의 노예로 전락했다.

전남지방 김병수 우정청장과 만난 적이 있다. 우리는 종이로 편지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우 다방'이란 총장로의 광주우체국 앞 사거리를 말한다.

오래 전, 대부분의 광주 젊은이들은 우체국 앞을 '만남의 장소'로 약속을 하고 거기에서 만나곤 했으므로 '우 다방'이란 별칭이 생긴 것이다. 물론 지금은

### 어등산골프장 대중제 5개월 순이익 8천만원 '2억 사회환원' 지킬듯

어등산리조트가 운영하는 광주 어등산골프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중제(9홀)에서 발생하던 순이익금의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5개월간 순이익금이 8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리조트가 최근 광주시에 제출한 지난해 11월 26일 개장 이후 5개월간의 순이익금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회원제(18홀)는 1억9000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대중제는 8000여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 같은 실적이라면 어등산골프장이 당초 사회환원을 약속한 대중제 골프장의 이익금 연 2억원을 무난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선포식

시 | 2013. 5. 28.(화) | 장소 | 전라남도청 서재필실 (9층) | 주관 |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전남서명운동본부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범도민 선포식**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선포식'이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렸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재무 도의외장,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서창호 전남교육희망연대 공동대표, 조준기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추진단장 등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 5·18 역사왜곡 공동 대처키로 호남권 광역·기초의회, 오늘 5·18묘지서 규탄대회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에 대해 공동대처키로 했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호남권 지방의회는 29일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비방 규탄대회'를 갖는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호남권 3개 광역의회와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전남 22개 시·군의회,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원 300여 명이 참여한다.

호남권 지방의원들은 이날 '국민 여러분

께 드리는 글' 형식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작금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비방은, 표현의 자유를 논하기에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강력히 대처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또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

포한 종편방송의 법령위반을 즉각 조사해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조호권 광주시의장은 "일회성 반쪽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호남권 의회는 또 5·18 왜곡 비방 대응과 관련해 29일과 30일 전국의 광역·도의회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호소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지정 서명운동 협조 등을 부탁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짜목짜목과 간담간담

하고 가릴을 한다.

짜목짜목 쓰면 눈에 문장의 매끄럽지 않고 어색한 점이 확실하게 보이고, 내용의 허술한 점이 보이고 형상화가 어떻게 잘뚫어져 있는지 드러난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바로잡고 다시 되돌려 읽으면서 수정 가릴을 한다. 시집을 몇 해 동안 묵혀두고 주무르고 또 고치고, 장편소설을 몇 해 동안 묵혀놓은 채 읽고 고치고, 또 들여다보고 고치는 것이다.

시(詩) 공사, 소설 공사를 날림으로 빨리빨리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시나 소설을 몇 만 명, 몇 십만 명이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쓰지 않는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고, 확실하게 감추어진 것까지도 꼭꼭 씹어 깊이 맛보며 읽어주기를 바란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맘에 속 드는 말씀은 남겼다. '지성인이 책을 써 전하는 것은 오직 그것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君子著書傳唯求一人之知)이다'.

서울 기자간담회를 하러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동두천역을 가고 지하철로 물이 나왔다. 지하철 안에는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었다. 젊은이들 열 사람 가운데 아홉 사람은 스마트폰 장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삼성전자

핸드폰이 생기면서 그 다방도 시들해졌다.

나는 우정청장에게 한 달에 한번 우체국 앞 사거리를 막아 '우 다방' 만들어 주고, 사랑을 나누는 작은 콘서트 같은 것을 열어 젊은 편지 낭송, 시낭송을 결집한 작은 음악회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 행사 열 공간에 부스 한둘을 마련하고, 우편엽서와 봉합엽서, 불편을 비치하고, 편지를 써 무료로 배송해주는 낭만적인 행사를 고려해보자고 했다. 우정청장에게서 그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만일 나에게 그 행사에 참여해 달라는 청이 오면 기꺼이 편지나 시 낭송을 해 줄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메시지만 주고받는 '빨리빨리'의 건조한 세상을 '짜목짜목' '간담간담' 세상으로 바꾸어갈 수 없을까.

핸드폰으로 주고 받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종이편지로 주고받는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종이편지로 나누는 사랑은 오래 묵혀 놓은 술이나 김치 같은 음식은 사랑이므로.

기계로만 사는 빨리빨리 시대에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천천히'의 편지 같은 삶을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가>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명품대출!

- ▶ 고액대출환영
- ▶ 사업자금대출
- ▶ 미준공건물
- ▶ 공유지분대출

※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빌 116호  
062)228-0114, 010-4601-8942

부동산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상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다외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외부동산재테크컨설팅,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상가 주택

-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72억 최저가20억
- ▷ 서구 쌍촌동 2중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5억5천만 최저가3억8천만
- ▷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7억

### 단독주택

-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2억4천만
-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2억 최저가1억4천만

###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월전동 평등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평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 토지매매

- ▷ 화순읍 연암리 자연녹지 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초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임대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기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1층 92평  
2층 72평  
시설완벽!  
권리금 없음  
모든업종가능

010-3701-4767

##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방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